

부산항 신선대 가호안 및 부두확충공사 현장

이 상 호 / 쌍용건설(주) 안전과장
안전관리자

'96년 9월 4일, 안전의 날이다.

아침 6시 50분, 먼동이 붉게 떠오르고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 부두에서 일원 협력업체 안전 담당자가 앰프 방송을 틀기 시작하자 전 근로자들은 지정된 장소로 정렬하기 시작하였고, 앰프에서는 “일하자, 더욱 일하자, 한없이 일하자, 쌍용!” 하는 힘찬 쌍용 사가가 막 끝나자 구령도 힘차게 체조음악에 맞춰 2회에 걸쳐 체조를 한 후 담당 공사과장 등이 무재해 안전결의를 선언하고 모범 근로자 3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이어 현장 소장의 당부 말씀을 통해서 무재해 시공, 고품질 시공, 깨끗한 현장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강조하는 정신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어서 안전관리자의 전월 안전활동에 대한 문제점, 향후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설명 주지 사항을 전달하고 신규 출역원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소개한 후 박수로써 맞이하면서 행사를 끝낸 다음 전체 지적확인 구호를 절도있게 하면서 작업장으로 출역한다.

우리 현장은 안전조회 및 체조부터 우선 정착하도록 하였는데 인부들이 대개 마찬가지로 집체활동 그 자체를 거부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고 현장 사무실의 위치가 해상 작업장 출입부두

에서 2km 정도 거리에 있으며 협력업체 사무실 역시 상당한 거리까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과반수가 업체 사무실 앞에서 시행하는 안전 조회에 작업 투입시간차의 핑계나 승선 위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불참하였다.

기능공의 성향을 보면 선원 및 해상 전문직종 인원들은 고정관념이 강하며 고령이어서 안전의식 개혁과 변화를 주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때론 작업시작전 선박을 다 뒤져서 기능공을 동참시켰고, 동절기 한겨울 새벽녘에 신입 공사담당직원이 안전조회를 진행하려 할 때 주지하는 근로자들이 온몸이 땀을 흘린 듯하여 애처로워 보였기에 구보를 시킨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되어 연속되는 과정에서 습관화되었고 언젠가 신규 채용자가 출역하던 날, 앞에 나와서 인사를 시키고 박수로 환영을 하자 한쪽 귀퉁이 인부들이 “야! 이런 현장은 처음봤어!”(관심에 공감한 듯)라고 하는 증언거림을 들었고 어느덧 안전체조에 익숙하여 묵시적으로 음악에 맞춰 누구나 할 것 없이 손발을 맞춰 동작이 정연히 일치되는 모습에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일구는 건설적인 보람이 선뜻 스쳐 지나감은 안전집체활동의 강한 활력소가 되어 순간적으로 자진 고무되고 사원 모두



의 일체감을 느껴서 좋았다.

이러한 안전조치 및 체조활동과 신규 채용자 교육활동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리고 정리정돈된 현장 가구기를 매일 실천하고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에 포상 격려를 시행하며 안전관리자의 안전 순찰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절제된 행위와 안전작업을 교육 선도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공감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한편, 공정회의 작업회의를 통해 안전대책 사항을 검토, 점검하는 것, 이러한 활동을 패턴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사의 중요한 안전관리방침인 안전시공 cycle 제도이다.

우리 현장의 공사 개요를 간단히 소개하면, 부산항 신선대 축조공사('91.12~'96.12)는 방파 호안을 포함하여 1,683m 가호안 조성공사로서 무재해 1차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부산항 신선대 부두확충 공사('95.5~'97.9)는 기존 부두의 남측으로 안벽 연장 300m 컨테이너 부두를 확충하는 공사를 별개의 조직으로 전담 안전관리자가 각 1명씩 상주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현장의 안전시설적 면모를 보면 작업장 출입이 대개 선박을 통하여 승·하선할 때 임의

의 장소로 뛰어내리거나 기어오르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므로 작업장별로 AREA를 지정해서 가설 안전선착장 통로를 설치하였고 부두 안벽 공사 AREA에는 계단식의 안전통로 시설과 철골 브레이싱 위엔 추락 방지걸이대와 일정 작업 통로를 이동식으로 제작 설치함으로써 작업장 내 추락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시키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가호안 공사에서는 잠수작업이 많은데 재래식의 머구리 잠수 형태로서 수중에서 중량물을 거치해야 하므로 중대 재해의 위험성이 항상 뒤따르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에어 공급 잠수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인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는 있었지만 잠수 보조요원이 물속의 잠수부를 BARGE 선 위에서 감시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설비의 이상이나 수심 7~8M 수중 작업중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특수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잠수설비에 대한 급작스런 정지와 에어의 누출시에는 자동 감지하는 비상경보장치를 고안해서 부착함으로써 한층 더 작업에 안전을 기할 수 있었다. 또한 해상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기예보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부산지방기상청으로부터 매일 아침

기상예보를 FAX로 접수하여 기상 돌변에 대처하도록 공사과와 협력업체 담당자에 전달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우리 현장의 작업장에는 무재해 실시 현장의 계몽과 안전제일 완벽시공을 실현코자 하는 종사원의 의지 표현을 대형입간판으로 설치하였고, 각 안전선착 가시설에는 양쪽에 안전난간과 전면부에 계몽 입간판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작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고 일부 작업장에는 안전 계몽 입간판을 이동식(개스터장치)으로 설치함으로써 안전표지 활용도를 상승시켰다. 정리정돈은 안전의 기본임을 인식시키고 생활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정리정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용 자재 적치장의 관리와 불규칙한 작업 여건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으므로 정리정돈 요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자재 적치장 정리와 시설물 보완, 청결한 현장 가꾸기를 생활화하는 데 일역을 담당하고 있다.

때론 구멍의 착용을 기피하던 석공이 어느덧 보호구 착용이 습관화되고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열중하는 모습에 격려를 하고, 작업반에

안전통로를 확보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적 중용하였으나 작업공기때문에 거부감을 표출하던 작업반장도 통로확보를 하고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적극성을 보일 때 자진고무가 된 적이 많았다.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지나가면 꽤 미덥지 못한 표정으로 못본 체하거나 그냥 스쳐지나가던 근로자가 이젠 지나치면서 인사나 인사말을 하는 밝은 표정을 보면 자못 이 일에 대한 의욕에 찬다.

안전관리는 공사 착공 당시 시공절차서에 의한 안전시공계획이 검토되어야 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 담당자의 직무와 역할로써 시공 안전 체크 기능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기 적절한 비용의 투입을 서슴치 말고 관계자 모두가 안전활동의 주역으로서 위험요소와 불안정한 상황을 즉각적이고 반복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집체활동을 통하여 동참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안전문화 정착의 조기 실현에 밑알이 되는 것임을 인식하며 나는 오늘도 동분서주 열심히 뛰고 있다.

